

가습기 살균제 완제품 제조·공급 SK케미컬 십수년 전부터 유해성 인지

판매대행으로 애경산업 내세워 만약의 사태 대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과정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완제품 제조 판매의 주 공급처였던 SK케미컬이 제품 유해성을 이미 십수년 전부터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SK-애경,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를 통해 확인됐다.

SK케미컬은 가습기 살균제 완제품을 직접 제조·공급한 업체다. 판매대행으로 애경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들은 막후에 숨어있었던 것으로 해당 계약서에서 파악됐다.

5일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SK케미컬-애경산업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에 따르면 SK케미컬은 가습기메이트를 제조·공급하고 애경산업은 이를 구매 및 판매한다는 계약을 지난 2001년 체결했다.

SK케미컬은 해당 계약서에서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인해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컬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가습기메이트 사용과 관련해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SK케미컬의 비용으로 이를 방어할 계획이라는 세부 내용도 작성했다.

만약 피해자들과의 화해, 판결 결정 등으로 애경 측이 손해를 배상할 경우 SK케미컬이 배상기로 했다.

특히 SK케미컬은 계약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애경이 SK 케미컬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실상 SK케미컬 측은 이 계약서를 통해 철저하게 애경을 앞세우고 뒤로 숨어있었던 것이다.

계약서 내용을 종합해보면, SK케미

컬은 이미 이때부터 자사가 만든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정도 인지했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게 아니라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또는 보상을 약속하지 못한 까닭도 해당 계약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서 애경과 SK 케미컬은 이 같은 계약 내용에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내용을 파기할 쪽이 가습기 메이트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만약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입찰을 발의 경우 이는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는 SK케미컬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성주 기자



블랙쇼핑데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블랙쇼핑데이(Black Shopping Day)를 찾은 국내외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5월 특가항공권 제공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선 노선 특가항공권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

5월 탑승 주중 편도는 2만3,000원(총액 운임)부터, 주말 편도는 2만8,000원(총액 운임)부터 제공한다.

또 6월 탑승 주중 편도는 2만원(총액 운임)부터, 주말 편도는 2만4,000원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번 특가 항공권은 2016년 5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용 가능한 항공권으로, 5월 10일까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ystart.com) 및 모바일웹(앱)에서 확인 및 이용 가능하다. /신광영 기자

신보,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발간

'신용보증 공공성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과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4일 다산경제연구원 노진환 학술연구용역 '신용보증의 공공성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과제'의 최종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비수익·공공성에 기반을 둔 기관의 성과지표를 탐색·발굴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는 시장성과 경쟁논리에 근거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로 인해 신보와 같은 공익 기관의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보고서는 신용보증 수혜기업의 금리인하 효과가 크고 신용보증지원은 우수한 재정수수효과를 발생시켜 재정지출의 합리적 대체수단이라는 점 등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동성 함정'으로 인해 금리정책의 효과가 부진한 상황을 해결할 정책수단으로서 신용보증제도가 유효하다는 점, 신용보증의 고용유지효과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 등 새로운 시각을 짚어주며 신용보증 성과를 재조명했다.

진용주 신보 연구개발부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그간 소홀하게 취급돼 온 신용보증 성과의 공공성 측면을 다룬 최초의 연구시도로서 향후 신보의 공공성 기반 성과 확대와 관련 지표 개발 및 측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오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신보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에서 이번 연구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LH전북본부, 전주만성지구 A1블록 711호 분양

16~18일 신청 접수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기)는 전주만성지구 A1블록에 공공분양 711호(전용 59㎡ 단일형)를 공급한다.

오는 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5월16~18일 신청 접수하고 오는 6월 3일 당첨자 발표, 7월11~13일에 걸쳐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8년 2월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며,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65%, 일반공급 35%의 비율로 배정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767만원(704~774만원)이며, 발코니확장비용은 3.3㎡당 14~20만원으로,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2회 30%, 잔금 60%로 잔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5,500만원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전주만성지구는 전주IC, 서전주IC, 지방도 716호선 등이 가까이 교통이 편리하고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의 각종 인프라와 인접할 뿐

만 아니라, 지구 내 근린공원,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고 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른 기대거치는 물론 주거, 업무, 문화, 상업, 공원 등이 어우러진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구축된다.

이번 공급하는 A1블록은 낮은 용적률(163.9%), 남향 위주(남동, 남서향) 배치 및 우수한 조망과 개방감을 자랑하며, 시공 관련하여 강화합판마루, 전동식 빨래건조대, 실내환기시스템, 지하주차장 LED 조명 등이 채택되는 등 쾌적한 단지로 건설된다.

자세한 사항은 효자동 견본주택 또는 인터넷(www.lh1ml.co.kr)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신광영 기자

가계, 지갑 꼭 닫았다... 지난해 평균소비성향 '역대 최저'

우리나라의 평균소비성향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가계의 소비가 특정 품목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평균소비성향 변동의 기여요인 분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소비성향은 72.4%다.

이는 전국 1인 이상 가구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010년 77.6%와는 5% 이상 차이가 난다.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는 것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보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낮다는 뜻이다.

가령 지난해 평균소비성향 72%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00만원 늘어났을 때 추가적인 소비지출은 72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조건 하에서 2010년에는 77 만원을 상회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1~2015년 사이 평균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동안 평균소비성향이 줄

어뜨는데 기여한 품목수는 63개, 늘어나는데 기여한 품목수는 34개다.

평균소비성향이 줄어뜨는데 기여한 품목수가 늘어나는데 기여한 품목수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는 것은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다양한 소비지출 품목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크게 기여한 품목으로는 통신서비스(-1.03%p)와 석유류 관련 품목, 그리고 교육 관련 품목이 꼽혔다. /안진수 기자

전북은행 '다문화 가정 희망도서 드림'

50세대에 맞춤형 도서전달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전북은행 본점 3층 소회의실에서 '2016 다문화가정 희망도서 드림' 행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언어의 장벽에 막혀 책이 있어도 제대로 읽어 주지 못하고,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다문화가정 50세대의 부모와 자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옛 이야기와 문화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로 번역해 제작된 맞춤형

도서전달 및 자녀와 함께 책 읽어보기, 팝업북으로 한옥을 만들어 봄으로써 한국의 전통주거문화를 알아보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책 읽어보기 대표가정으로 선정된 캄보디아 출신 체이페치팔리씨는 자녀에게 감동이야기로 제작된 한국동화책을 읽어주며 언어와 문화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은 "각 다문화가정의 나라별로 맞춤형 도서가 지원되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말했다. /정영수 기자

익산 '평화육교' 철거 후 재설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익산시 '평화육교' 개체(철거 후 재설치)하는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 익산 평화육교에 위치하고 있는 평화육교는 1975년 시준공돼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후 구조물이다.

그동안 공단은 육교하부의 선로를 2선에서 4선으로 증설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인 익산시와 보수·보강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하지만 익산시와의 이견으로 선로 증설이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 평화육교 0.98km 구간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가 기존선 2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평화육교가 새로 건설되면 선로가 2선에서 4선으로 확장되고, 고속열차가 2개선을 전용선으로 활용함에 따라 열차의 증편운행(증 73회)이 가능해져 철도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광영 기자

순창종합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